

러시아인 시각에서 러시아 문화 다시 보기 - 소치동계올림픽 개막식 영상을 통해 재현된 러시아 문화 콘텐츠 분석을 중심으로 -

김다원*

요약

본 연구는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식 영상과 문화공연에 등장한 러시아 문화 콘텐츠 분석을 통해 러시아인들의 시각에서 러시아 문화의 정체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개막식 프로그램 중 러시아문화 관련 영상과 문화공연을 대상으로 하였다.

러시아 문화 영상에서는 ‘러시아 알파벳’, ‘러시아의 목소리’영상을 통해 등장한 러시아 문화 콘텐츠를 분석하였고, 문화공연에서는 ‘러시아 오디세이’, ‘봄의 의례’, ‘페스티벌’, ‘위대한 상트 페테르부르크’, ‘나타샤 로스토바의 무도회’, ‘러시아 절대주의 발레’, ‘모스크바’, ‘꿈’의 공연을 통해 서사적으로 재현된 러시아 문화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영상과 문화공연으로 재현된 러시아 문화는 러시아 국가의 태동기, 17세기 타타르 인으로부터의 독립기, 17세기 표트르 대제와 예카테리나 여제 때의 영토 확장기, 볼셰비키 혁명 이후 러시아 변화기, 그리고 현재와 미래상 중심의 러시아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다양한 기후지형 환경을 지닌 7개 지역과 그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들의 전통 문화와 삶의 모습, 러시아에서 발달하여 러시아인 뿐 아니라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러시아 문학과 예술, 그리고 러시아의

*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veritas2@gnue.ac.kr

우주과학기술이었다. 러시아는 거대한 영토만큼이나 다양성을 지닌 문화와 사람들로 구성된 국가이기 때문에 문화적 정체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한 면에서 국제행사를 통해 러시아인의 시각에서 재현된 러시아 문화의 특징을 찾아보는 것은 다양한 관점에서 러시아 문화보기를 경험하고 러시아 문화 이해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러시아 문화, 올림픽 개막식 문화 영상, 문화 다양성, 지리교육, 국제이해교육

I. 서론

러시아에는 거대한 영토에서 오랜 역사에 걸쳐 다양한 민족들이 형성한 영향력있는 문화들이 내재되어 있다(정두용 외, 2008, 157). 러시아에 발달한 다양한 문화는 문학뿐 아니라 음악, 미술, 영화, 종교, 신화 등의 영역에서 인류 역사 및 세계인의 삶의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공영호, 2002,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러시아 문화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풍요롭지 않다. 학교 교육과정 내 러시아 문화에 대한 학습 내용의 한정성, 러시아 문화에 대한 접근성의 빈약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장구한 역사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화의 발달은 오히려 러시아 문화 정체성의 인식 혼란을 초래하였다. 러시아 내 많은 소수민족들에 의해 형성된 러시아 문화의 다채로움은 러시아 문화에 대한 일부 고정관념과 편견을 갖게 하였다(김수환, 2006, 75). 러시아 문화

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문학, 예술 분야에 치우쳐 있고 문화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주로 구체적인 문화에 대한 접근보다는 개괄적인 인식 수준에 그치고 있다(공영호, 2002, 1).

국제 행사 개막식에 연출된 개최국의 문화공연은 행사 못지않게 세계인의 주목과 사랑을 받는다. 행사 개최국 또한 자국의 문화를 세계인에게 내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해 왔다. 즉, 국제행사에서 연출된 개최국 문화 소개는 행사 만큼이나 지구적 무대성을 지니고 있다(이종수, 2011, 375).

국제행사 개막식의 문화공연은 정교하게 구성된 ‘국가 서사’를 국내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개최국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대중적 상상 속에서 정당화할 기회를 제공한다(Rouche, 2000; 이종수, 2011, 376에서 재인용). ‘월드컵’, ‘올림픽’, ‘세계 대회’ 등의 각종 행사를 통해 개최국은 자국의 국력 뿐 아니라 자국 문화의 정체성과 자국의 문화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애를 쓴다(이종수, 2011, 377). 2008년 제29회 하계 베이징 올림픽에서 다양한 문화를 간직한 중국도 자국에서 발명한 문명의 이기(해시계, 화약, 종이, 문자)를 중심으로 ‘취황 찬란함’을 담아서 중국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려는 노력을 보였다(강익모, 2008, 99). 2014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도 개막식 공연을 통해 전 세계인들에게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서 보여 주었다.¹⁾

1)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는 45억 아시아인의 하나됨과 ‘소통’, ‘공감’을 위해 특별히 한류 문화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고은 시인의 시 ‘아시아 드의 노래’로 시작하여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 ‘아주 오래전의 아시아’, 바다를 통해 만나는 아시아’,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된 아시아’, ‘오늘 만나는 미래, 하나된 아시아’순으로 구성하였다. 아시아 안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아시아의 하나됨을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국가에서는 국제행사를 통해 행사목적에 맞는 그러면서도 개최국의 입장에서 가장 내세우고 싶은 문화를 가장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제행사 개최국들은 국제행사 개막식 영상을 통해 자국의 문화를 전 세계에 홍보하려고 많은 관심을 쏟는다. 특히, 자국이 지닌 많은 문화 중에서도 가장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정신을 담고 있는 문화를 선보인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 의미에서 올림픽과 같은 국제 행사에서 각국에서 내보이는 문화들은 자국의 입장에서 가장 내세우고 싶은 특별한 문화에 해당된다. 하지만 자국의 문화들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글로벌, 국가, 로컬 등의 갈등과 다양한 민족, 사회적 요구와 분열의 담론과 글로벌 맥락 하에서의 국가 정체성 담론이 내재되게 마련이다(안영은, 2013, 36). 국제행사의 개막식 영상으로 재현하는 문화에는 세계인에게 드러내고 싶은 문화적 정체성이 내재되게 되어 있다. 재현은 ‘보이지 않은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다. 보여주는 자의 입장에서 숨겨졌던 보물을 꺼내 듯 국제 행사에서 자국의 문화 재현은 자국이 지닌 문화적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러시아에서 개최된 소치동계올림픽 개막식 영상을 통해 재현된 문화는 인류의 화합과 공동체 의식 함양의 가치를 지닌 올림픽 정신을 담고 있으면서도 러시아인 시각에서 가장 내세우고 싶은 러시아문화라고 할 수 있다. 르제프스키는 러시아 문화의 특징을 ‘타자들에 대한 개방성’, ‘열정적이며 급진적인 변화의 추구’로 설명하였다(르제프스키(최진석 외 옮김), 2011, 14-15). 이러한 특징을 담아내듯 러시아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²⁾의 개최장소를 소치로 정하였다.

소치는 러시아의 남부에 위치하였으며, 흑해 북부 연안에 위치한 곳으로 해양 진출과 동서남 등 주변 지역으로 진출을 위한 위치적 장점을 지닌 곳이다. 즉, 러시아의 개방과 변화, 그리고 과거의 역사를 담은 위치 선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의 개방과 변화 혁신에 대한 열망은 세계와의 소통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세계와의 소통을 위해 자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담아 세계인에게 홍보하려는 열망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국제 행사였던 소치동계올림픽에서 개막식 영상을 통해 재현된 러시아 문화는 러시아인들이 세계인에게 가장 알리고 싶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게 하는 데 중요한 매체가 될 수 있다.

타국의 문화이해는 학생들에게 세계에 관한 지식과 안목을 길러주며, 세계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한 바른 이해를 이끌고 있다(이경한, 2010, 297). 그리고 문화간 활발한 상호 작용과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고정관념과 편견을 극복하고 문화간 상호 이해와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사실로서의 타문화와 다른 지역 바라보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문화 바라보기가 이뤄져야 한다(김다원·한건수, 2012, 455).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이다. 나아가서 앞으로 학생들은 지난 시대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세계 환경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

2) 제22회 2014 소치동계올림픽은 2014년 2월 7일부터 2월 23일까지 17일간 개최된 국제적 행사이다. 소치는 러시아 남부 흑해 북부 연안에 자리잡은 곳으로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남쪽 그리고 해양 진출의 요지이면서 동시에 동서남북 주변 지역으로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한다.

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문화이해는 인간이해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4년 2월 7일 공연된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식 영상과 문화 공연에 등장한 러시아 문화를 분석하여 러시아인들의 입장에서 세계인에게 널리 보여주고 알리고 싶었던 문화라는 관점에서 러시아인들이 생각하는 러시아 문화의 정체성과 그것의 의미를 찾아 러시아 문화 이해의 기반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II. 상상의 러시아, 상상의 문화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인들에게 거대한 영토는 축복이기도 하였지만 공동체 의식 형성에 장애가 되었다. 최초의 태동 순간에는 키예프공국과 노브고로드공국을 중심으로 네바강-로바치강-드네프르강-흑해로 이어지는 남북수로를 중심으로 번성하기 시작한 조그만 나라였으나 오늘날에는 동으로는 태평양, 서로는 발트해, 북으로는 북극해, 남으로는 흑해연안에 이르는 거대한 영토가 되었다(권정임, 2005, 165). 영토의 확장으로 인해 러시아 영역 안에는 그 만큼 다양한 민족들이 거주하게 되었고 다양한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러시아 사상가 차다예프는 조국 러시아를 ‘머리가 비어있는 거인’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권정임, 2005, 166에서 재인용). 그 만큼 러시아인을 하나로 묶어 줄 러시아 문화의 정체성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러시아 문화에 대한 타국인의 이미지 형성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방교영, 2011).

러시아의 계몽군주였던 표트르 대제는 동유럽과 북유럽의 패권을 장악하면서 동, 서,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하였고, 예카테리나 2세 시기에 이르러 알래스카에까지 진출하였으며 서쪽으로는 폴란드 영토 분할에 참여하여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국경을 맞닿았으며, 남으로는 흑해 연안에 이르는 대제국을 형성하였다(황성우, 2014, 54). 이러한 거대한 영토를 차지한 러시아 제국에 대한 이미지는 러시아제국의 보편적 성격과 위치적 특수성을 반영한 지리적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러시아는 동유럽 평원과 삼림으로 이루어진 중앙부, 타이가 중심의 시베리아, 사막과 초원으로 이루어진 남부 지역, 북극해와 영구동토층으로 이루어진 북극해 주변 등의 다양한 자연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환경을 생활무대로 이루어진 삶의 과정을 거치면서 각 지역은 위치적 특성을 함유한 독특한 생활지역으로 거듭나면서 러시아 영역 안에서 독특한 장소성을 드러낸다(English, 1984, 182). 예를 들어, 모스크바 중심의 동유럽 평원은 울창한 산림에 벌채와 개간으로 숲을 개간하여 러시아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중심지가 되었으며, 우랄산맥 남쪽의 초원지대에서는 동으로부터 밀려온 아시아 유목민들의 침략으로 인해 러시아 질곡의 역사를 담은 지역성을 보여준다(황성우, 2012, 55).

또한 러시아연방은 중앙연방지구, 북서연방지구, 남부연방지구, 볼가연방지구, 우랄연방지구, 시베리아연방지구, 극동연방지구 등 7개의 연방지구로 문화적 특성에 따라 구분하기도 한다. 이러한 연방지구로의 구분은 자연환경의 차이와 문화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지구별로 문화적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공영호의 연구(2005)에 의하면, 상트 페테르부르크 중심의 북서지구 문화는 냉담하고, 공

식적이고 부자연스럽게 규칙적이고 추상적이고 혼동스러운 서구적 특징을 드러내는가 하면, 남부지구는 투박하고 원시적이고 아시아적인 문화와 대조를 이루고 있고 그 사이에 위치한 모스크바 중심의 중앙지구는 가족적이고 친근하고 안락하고 자연스러운 러시아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러시아 문화의 다양성은 지리적 영토의 거대함 외에도 동서양 사이의 위치적 특수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미 차다예프는 러시아의 지리적 정체성을 동과 서의 두 개의 상이한 부분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는 지리적 구분일 뿐 아니라 사물의 질서이면서 인류의 삶의 조직을 아우르는 사상이라고 하였다(권정임, 2005, 168에서 재인용). 차다예프의 언급처럼, 러시아는 동양적 이미지와 서양적 이미지를 동시에 지닌 곳이었다. 그래서 러시아인들도 동양성과 서양성 사이에서 러시아 문화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였다. 이러한 사실은 러시아인들의 ‘러시아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 집약될 수 있다. 러시아의 지리적 위치가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 지대에 걸쳐 있다는 사실, 그것이 유럽적 얼굴과 아시아적 얼굴을 지녔다는 사실은 러시아 인들에게 고통스러운 자기인식의 여정이었다(김수환, 2006, 75). 더불어서 비러시아인들에게도 러시아문화를 인식하는데 많은 한계를 갖게 하였다.

러시아인들 만큼이나 우리에게도 러시아 문화의 정체성 인식은 쉽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러시아 관련 교과서 내용 분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중고등학교 사회교과서 내 러시아 관련 내용은 고등학교 세계지리 영역에서는 ‘러시아 타이가 지대 목조 교회’와 ‘네네츠족의 순록 유목’(권동희 외, 2014, 80)이, 중학교 사회에서도 ‘툰드라

지역의 자연과 생활'에서 네네츠족의 순록 유목과 고상 가옥(류재명 외, 2014, 67)에 한정되어 있다. 이는 자연 환경과 관련하여 냉한대 기후적 조건에서 발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 양식의 극히 일부에 한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그간 연구 진행된 러시아 관련 많은 논문들은 경제적인 이익추구의 방향에서 접근해가고 있었으며, 이런 움직임은 학교 교육 과정에도 반영되어 지리영역은 물론 일반사회영역에서도 러시아·한국 간 경제교류와 관련한 진술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윤남희, 2008). 과거 '소련' 혹은 '공산주의 체제'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상호 실리적인 경제적 문제로 관심이 옮겨가면서 러시아에 대한 관심은 정치와 경제 영역에 많이 한정되어 왔다.

우리에게 러시아는 세계 지역의 한 부분으로서 자연환경에 의해서 지역의 문화와 삶의 모습이 상상되어진 지역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냉한대 기후 지역이면서 툰드라와 침엽수림이 많아 목조 가옥이 풍부하고 추위에 대비하여 두꺼운 옷과 털모자를 쓰며, 순록의 유목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공산주의 체제를 유재했던 국가였으나 소련의 붕괴와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으로 경제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국가 정도로 상상되어지고 있다.

상상과 인식의 한계는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어렵게 한다. 대상에 대한 인식의 한계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확고히 하여 소통의 제약을 유발한다. 방교영(2011, 97)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20-30대 한국 여성들의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는 공산주의 체제 국가의 강압과 냉혹함의 이미지, 소련의 아류로서 냉소적이고 차가우며, 러시아인과 접촉 및 소통의 가능성 면에서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

지 못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이러한 현상은 학생들에게서도 예외적이지 않았다. 본 연구자가 실시한 대학생 대상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 설문 결과에 의하면 ‘기후적으로 척박하고 추운 곳’, ‘공산주의, 후진국, 스탈린 정치의 통제’, ‘인종차별 문화’, ‘사회주의, 독재, 소수 민족 억압’ 등으로 학생들에게 인식된 러시아 이미지는 한정적일 뿐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이 강했다.³⁾ 이는 학교 교육에서 배워지고 있는 러시아 관련 기술이 경제적, 지리적인 것으로만 채워지고 있다(윤남희, 2008, 46)는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추정해 볼 수 있다.

우리가 러시아를 바라보는 시각의 또 다른 반영이 아닌가 한다

한 국가에 대한 주관적 지식은 국가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에 의거하여 형성되며, 그러한 주관적 지식은 국가에 대한 이미지 형성의 단초가 된다(Boulding, 1956).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는 대상에 대한 호감도, 대상에 대한 반응의 정도를 결정하기도 한다(Scott, 1966). 러시아인이 내세우고 싶은 러시아 문화의 특징을 찾아보는 것,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풍요로운 정보와 다양한 면에서의 시각적 접근은 러시아 문화의 실재를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될뿐더러 러시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이끌어내는 데 일조할 것이다. 헤세는 <데미안>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마음 속에 대상에 대해 싫어하는 뭔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정여울, 2015, 84). 러시아인들이 사랑하는 러시아 문화에 대한 인식은 러시아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끌어내고 호감을 유발하는 데도 일조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관점에서 러시아 문화이해의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이다.

3) 본 설문은 2015년 5월 대학교 3학년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함. 설문문항은 ‘러시아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적어보세요.’였다.

III. 소치동계올림픽 개막식 영상에 재현된 러시아 문화의 특징 분석

1.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식 영상과 문화공연에 재현된 러시아 문화 콘텐츠들과 유형을 분석할 것이다. 영상과 문화공연에 재현된 러시아 문화 콘텐츠들을 분석하여 러시아인의 시각에서 세계인에게 재현하고자 한 러시아 문화 유형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한다.

올림픽 개막식 영상과 문화공연은 캐릭터, 배경이미지, 음향 등의 시청각 기호 뿐 아니라 전체 구성, 모티브 등의 스토리의 조합으로 만들어진다는(백승국 외, 2012, 155). 본 연구에서는 개막식 영상과 문화공연에 등장하는 문화 콘텐츠 및 전체 구성을 분석하여 그러한 문화 콘텐츠들과 전체구성을 통해 재현하고자 한 문화 유형은 무엇인지를 찾아볼 것이다. 즉, 개최국의 입장에서 올림픽 개막식 행사를 활용하여 세계인에게 알리고 싶었던 ‘러시아 문화’의 콘텐츠들과 그러한 문화 콘텐츠들을 서사적으로 구성한 전체 구성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러시아 문화 유형을 찾아보고자 한다.

2. 분석대상

소치동계올림픽 문화 행사의 테마는 ‘전통과 현대, 그리고 다문화 축제’였다. 올림픽 개막식 영상과 문화 공연에서는 러시아의 과거, 현재, 미래의 흐름으로 전통에서 현대까지 러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전체적으로 보여주었다. 개막식은 ‘러시아의 꿈’이라는 주제로 18개 장면으로 구성되어 약 160분 동안 진행되었다. 2014소치 동계올림픽 개막식 18개 장면은 ‘러시아 알파벳’ 영상, ‘러시아의 목소리’ 영상, 러시아의 국기 등장, 러시아 푸틴 대통령 등장, 선수입장, 소치동계올림픽 상징 마스코트 등장, ‘러시아 오디세이’ 문화공연, ‘봄의 제전’ 문화공연, ‘페스티벌(러시아 전통축제인 마슬레니차)’ 문화공연, ‘위대한 상트 페테르부르크’ 문화공연, ‘나타샤 로스토바의 첫 무도회’ 문화공연, ‘러시아 절대주의 발레’ 문화공연, ‘모스크바/꿈’ 문화공연, 축하 메시지 전달, 평화의 비둘기 행사, 올림픽의 신, 성화봉송 및 봉화 등으로 이루어졌다(유경숙, 2014, 196;MBC 2014소치동계올림픽 개막식 영상 참조). 본 연구에서는 전체 올림픽 개막식 TV 중계 영상 가운데 개막식 영상과 문화공연 부분을 분석하였다. ‘러시아의 알파벳’, ‘러시아의 목소리’ 영상과 ‘러시아 오디세이’, ‘봄의 제전’, ‘러시아 전통 축제인 마슬레니차 페스티벌’, ‘위대한 상트 페테르부르크’, ‘나타샤 로스토바의 첫 무도회’, ‘러시아 절대주의 발레’, ‘모스크바/꿈’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공연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TV개막식 영상과 문화공연은 MBC 영상 자료를 활용하였다.⁴⁾

4) <http://vodmall.imbc.com/player/sochi/index.html>, 2014 소치 올림픽 개막식 영상, (MBC, 2014).

3. 분석결과

1) 개막식 영상과 문화공연에 재현된 러시아 문화콘텐츠 및 문화 유형 분석

(1) ‘러시아 알파벳(Russian Alphabet)’ 개막식 영상 분석

러시아 소치동계올림픽 개막식 행사는 러시아 알파벳을 활용한 영상으로 시작되었다. 알파벳 33자를 활용하여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3개 문화 콘텐츠를 재현하였다(<표 1> 참조). 재현된 각 문화 콘텐츠들은 생활 무대로서의 자연환경, 전통 문화와 과학기술, 그리고 역사적 인물로 유형화 해볼 수 있다.

러시아의 자연환경으로 등장한 것은 바이칼 호수였다. 러시아의 자연환경으로 등장한 것은 바이칼 호수가 유일하다. 바이칼 호수는 시베리아 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담수호로서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정두용 외, 2008, 182). 바이칼 호수는 이러한 규모 면에서 뿐 아니라 러시아 역사에 있어서도 러시아 인들에게는 의미 있는 곳이다. 러시아는 로만-게르만의 지배와 몽골의 지배 역사를 통해 유라시아적 문화를 승계하면서 시베리아를 중심으로 아시아로의 정치권력 확대와 영역 지배의 야망을 지니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바이칼 지역은 시베리아 지역에 공식적인 러시아인 촌락을 세움으로써 러시아의 지배를 확고하게 다지게 된 계기가 된 곳이다(권정임, 2005, 185). 시베리아 남부 지역의 건조한 환경을 옥토로 바꿔 경작이 가능하게 하여 러시아인들의 삶의 무대를 동으로 남으로 확장시킨 역사성을 지닌 바이칼 호수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애정을 찾아볼 수 있다. 시베리아는 내륙이기 때문에 바다와 먼 거리에 위치한 이곳에서 바이칼 호수는 시베리아 남부 지역 주민들의 생활의 원천으

〈표 1〉 러시아 알파벳 영상에 나타난 문화 콘텐츠 분석

러시아의 자연환경	전통 문화와 과학기술	역사적 인물
■ 바이칼 호수	■ 아즈부카(러시아 알파벳) ■ 우산카(털모자) ■ 자크라마(곡식 저장고) ■ 호흘라마(민속 수공예품) ■ 러시아 발레	■ 이고르 시코르스키(헬리콥터 발명) ■ 유리 가가린(최초 우주 비행사) ■ 주콥스키(러시아 물리학자) ■ 치올코프스키(로켓공학자) ■ 알렉세이 시추세프(건축가)
	■ 루노호트(달탐사 로봇) ■ 주기율표 ■ 스푸트닉 1호 ■ 낙하산 ■ 러시아 우주정거장	■ 도스토예프스키(문학작가) ■ 블라디미르 나보코프(문학작가) ■ 톨스토이(문학작가) ■ 안톤 체호프(문학작가) ■ 푸쉬킨(문학작가) ■ 유리 놀스타인(애니메이션 제작) ■ 세르게이 아이젠슈타인(영화감독)
		■ 차이코프스키(음악가) ■ 칸딘스키(화가) ■ 말레비치(화가) ■ 샤갈(화가) ■ 예카테리나 2세(최초 여성 계몽군주)

로서 가장 적합한 곳이었다. 또한 바이칼 호수 주변은 진화론적으로 대단히 가치 있는 다양한 동식물상 고유종을 갖고 있으며, 뛰어난 자연경관, 또 다른 자연적 가치를 지닌 보호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1996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⁵⁾

다음은 러시아의 세계사적 과학기술과 전통 문화 영역이다. 루노

5) 참조: <http://heritage.unesco.or.kr/whs/lake-baikal/>

호트 달탐사 로봇, 주기율표, 스푸트닉 1호, 낙하산, 우주 정거장과 같은 과학기술 분야, 러시아 알파벳 아즈부카, 털모자(우산카), 곡식 저장고(자크라마), 전통 수공예품(호홀라마), 러시아 발레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의 생활 문화를 제시하였다. 이들 문화는 러시아 내 대부분 지역 어디서나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러시아의 보편적인 전통 문화에 해당한다. 아즈부카는 모든 러시아인들이 사용하는 문자이며, 우산카는 털모자인 샤프카의 일종으로 겨울이 추운 러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의 겨울나기에 활용되는 모자이다. 호홀라마는 자작 나무를 이용하여 만든 전통 수공예품으로 러시아 연방에서 가장 오래된 고도로 알려진 노브고로드 지역에서 처음 만들어져 전통 대대로 러시아인들의 생활 도구로 활용되었다. 러시아 발레는 표트르 대제와 예카테리나 2세 여제의 서유럽화 정책의 과정에서 러시아에 도입되어 발달한 예술이다.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 속의 미녀’, ‘호두까기 인형’ 등과 어우러지면서 러시아 인 뿐 아니라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된 문화라고 볼 수 있다.

과학기술 관련 발명품들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첨단과 그리고 영향력있는 러시아 과학기술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러시아는 우주공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정두용 외, 2008, 164).

역사적 인물들의 영역은 건축가를 포함하는 과학자, 문학·영화계 작가와 감독, 음악·화가, 정치가 영역의 인물들로 구성되었다. 이고르 시코르스키(헬리콥터 발명), 유리 가가린(최초 우주 비행사)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러시아 역사에서 뿐 아니라 세계사에서 획기적인 과학의 발전을 이끌어 낸 사람들이다. 그리고 도스토예프스키(문학작

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문학작가), 톨스토이(문학작가), 안톤 체호프(문학작가), 푸쉬킨(문학작가), 유리 놀스타인(애니메이션 제작자), 세르게이 아이젠슈타인(영화감독)과 같은 인물들도 이미 전 세계적으로 세계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다. 차이코프스키(음악가), 칸딘스키(화가), 말레비치(화가), 샤갈(화가) 또한 세계인들에게 이미 잘 알려진 러시아의 음악가이자 화가들이다. 예카테리나 2세(최초 여성 계몽군주)는 표트르 대제와 함께 계몽 군주로서의 칭호를 얻고 있으며, 재임 시절 서유럽화 정책으로 러시아 역사에서 변곡점을 만들어 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식 영상을 통해 러시아인들이 세계인들에게 보여준 문화는 러시아의 우주과학 기술문화, 오랜 역사에 걸쳐 러시아인들의 삶 뿐 아니라 세계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문학, 예술 분야의 인물과 그들의 작품, 러시아 역사에서 획기적 전환을 가져왔던 계몽군주, 그리고 러시아인들의 삶에 보편적으로 녹아들어서 있는 전통적인 삶의 문화, 그리고 바이칼 호수로 대표되는 자연환경으로 유형화해볼 수 있다.

이러한 재현 문화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은 보편성과 특수성이다. 일부 재현 문화들은 모두 러시아 뿐 아니라 세계에 과학기술 및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인류 삶의 편의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들이다. 또한 우샨카, 자크라마, 호흘라마 등의 러시아 전통 문화의 일부는 러시아의 특별한 자연환경으로 만들어진 전통성 짙은 문화적 특성을 드러내는 것들이다. 바이칼 호수는 자연환경적 특성을 지니기도 하지만 시베리아 지역으로 러시아의 거주지 확장과 같은 역사적 특성을 드러내 주는 것

이다.

(2) ‘러시아의 목소리(Voices of Russia)’ 영상 분석

러시아에는 넓은 영토 만큼이나 다양한 민족, 문화, 그리고 자연환경이 있다. ‘러시아의 목소리’ 영상에서는 러시아의 다양한 자연 환경을 무대로 살아가는 다양한 러시아인들의 삶의 모습을 7개 지역으로 나누어 보여주었다(<표 2> 참조).

19세기 러시아 작곡가 알렉산더 보로딘의 ‘바람을 타고 날아가다(Fly away on the wings of the wind)’를 배경음악으로 하여 7개의 섬으로 표상한 러시아의 지역들이 등장한다. 우랄 지역의 자작나무숲, 중앙 러시아의 목가적 풍경을 담은 초원, 동 시베리아 북부의 레나강 유역, 시베리아 동남부의 바이칼 호수 주변, 러시아 동북부의 추코트카 지역, 화산지대인 캄차카 반도, 러시아 북부 북극해 연안의 7개 자연 환경 지역이다. 이러한 러시아 지역 구분은 그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지역 구분 방식이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지역 구분은 주목해볼만 하다.

가장 먼저 재현된 우랄 지역을 표상한 곳에서는 자작나무와 흰 색말이 등장한다. 우랄 산맥은 역사적인 면에서 볼 때, 거대한 러시아를 유럽쪽 러시아와 아시아쪽 러시아로 구분짓는 경계선 역할을 하며, 동시에 러시아의 영역을 시베리아로 확대하여 광활한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황성우, 2013, 54). 또한, 우랄 산맥을 중심으로 거대한 산지 지역은 오늘날 러시아 자원 개발과 각종 우주과학 기술 발달을 위한 자원의 보고이다. 즉, 각종 자원 개발 뿐 아니라 각종 산업발달의 근거지가 되고 있다. 이처럼, 우랄

〈표 2〉 ‘러시아의 목소리’ 영상에 등장한 7개의 러시아 자연환경 지역

지역	재현 지역의 특징
우랄지역	우랄 산맥을 중심으로 주변부 지역, 러시아 광공업 산업의 중심지,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부, 러시아 인구, 산업의 중심부
캄차카 반도	캄차카 반도 일대는 환태평양 지진대가 지나는 화산 지대, 청정 자연 환경을 지닌 세계자연유산 지역, 각종 자원 풍부
중앙 러시아	러시아의 남부 지역에 해당, 상대적으로 농업에 유리한 기후 환경, 농목축업 발달. 초원과 사막 환경 지역
레나강 유역	시베리아 저지대와 북극해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강, 시베리아 주변 생활인들의 젓줄 역할
바이칼 호수 주변	러시아 남부 내륙에 위치한 수자원 공급처, 세계에서 가장 깊고 큰 규모의 담수호, 청정 아름다운 자연 환경 지역
북부 북극해 연안	북극해 연안의 러시아 북부 지역, 많은 소수 민족이 거주하면서 다채로운 생활 문화 발달, 북극해 주변의 툰드라 및 냉대 기후 환경 지역
추코트 반도	러시아의 최 북동부 지역, 아메리카와 인접, 북극해와 태평양의 접점 지역, 다수의 소수민족 거주지

지역은 러시아의 역사, 문화, 지리적 환경에서 중심지로서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본 영상에서는 특별히 자작나무 숲과 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자작나무는 러시아의 국목이며, 러시아 인들에게는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이 지역이 러시아의 중심부임을 간접적으로 상징한다. 실제로 우랄 산맥을 중심으로 주변부 지역은 러시아 광공업 산업의 중심지이며 인구와 산업의 중심부 역할을 한다(황성우, 2013, 55). 러시아

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다.

두 번째로 등장한 지역은 캄차카 반도의 화산지대다. 캄차카 반도는 행정 구역상 캄차카 주와 코랴크 자치구로 이루어져 있다. 환태평양 화산대의 일부에 해당한다. 영상에서는 특별히 화산지대로서의 모습을 집중 조명하여 보여주었다.

세 번째로 등장한 지역은 중앙 러시아의 농촌이다. 러시아의 전통 가옥과 젖소, 닭과 같은 가축 사육의 풍경과 농경지의 모습을 담은 농목업 생활상을 보여준다. 예로부터 러시아 인들이 농경을 해왔기 때문에 지역의 70~80%가 농경지로서 개척되어 있다. 대부분 농목업이 발달한 곳이다. 그만큼 러시아인들의 소박한 농목업 전통적인 생활모습이 담긴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러시아를 구성하는 많은 소수민족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다.

네 번째로 레나 강 주변 지역이 등장했다. 레나 강 유역은 예니세이 강, 오비 강 등과 함께 시베리아 지역에서 수로가 발달한 곳이다. 시베리아는 동서 길이가 약 7000km, 남북 길이가 약 3500km, 면적이 약 1000만km²로 정말로 엄청난 크기이지만 중앙시베리아 고원을 중심으로 동쪽의 레나 강 유역과 서쪽의 예니세이 강과 오비 강 유역의 저지 평원으로 구성된다. 그 만큼 커다란 저지 평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가 발달했다.

다섯 번째는 바이칼 호수 주변 지역이다. 바이칼 호는 이미 ‘러시아 알파벳’영상에서 등장한 곳이기도 하다. 앞의 ‘러시아 알파벳’영상에 등장한 바이칼 호수에 대한 설명에서도 제시했듯이 이 곳은 러시아의 역사, 아름다운 경관, 생물 다양성, 그리고 천혜 자원의 보고로서의 가치를 지닌 곳이다. 바이칼 호수 주변 지역은 이미 구석기

시대부터 거주의 역사적 흔적이 있는 곳이며 아시아계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면서 좁고 척박한 토양이지만 바이칼 호수를 중심으로 일찍이 농경문화가 발달하였을 뿐 아니라 인근의 이르쿠츠크 자치구를 중심으로 광공업이 발달한 곳이기도 한다.

여섯 번째에서는 북부 북극해 주변의 모습이 나타난다. 북극해 주변 지역은 러시아의 많은 소수민족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으로 그들의 전통적인 문화의 단면들을 담고 있다.

일곱 번째로 등장한 곳은 추코트카 자치구이다. 추크치인들의 순록 유목 생활과 주민들의 전통 가옥 등을 포함한 독특한 생활 방식을 보여준다. 러시아 영역의 극동에 해당한다.

마지막에는 러시아의 전통 의상인 루바하(또는 루바슈카)를 입은 선수들이 둥근 원을 그리며 손에 손을 잡고 화음을 이루는 모습으로 행사를 마무리한다.

‘러시아의 목소리’ 영상에서는 우랄지역을 중심으로 서남부의 중앙 러시아 지역, 동남부의 바이칼 호 주변, 시베리아 저지 평원의 레나강 유역, 동부의 캅차카 반도와 추코트카 반도, 그리고 북부 북극해 주변을 중심으로 하여 러시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자연환경을 토대로 발달한 지역별 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환경을 토대로 다양한 소수민족들의 생활 모습과 그들의 독특한 삶의 문화를 담고 있다. 또한, 다양한 소수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면서 이들은 공동의 삶의 터전인 러시아에 존재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문화공연을 통해 재현된 러시아 문화 분석

다음은 개막식 문화공연에 등장한 문화분석이다. ‘러시아 오디세

이’, ‘봄의 의례’, ‘페스티벌’, ‘위대한 상트 페테르부르크’, ‘나타샤 로스토바의 무도회’, ‘러시아 발레’, ‘모스크바’, ‘꿈’의 공연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3> 참조).

〈표 3〉 문화공연을 통해 서사적으로 재현된 러시아 문화

공연프로그램	재현 러시아 문화
러시아 오디세이	자작나무 숲 자연환경 배경, 삶의 환경 개척, 우주과학기술 발달, 예술 문화 발달
봄의 의례	러시아 전통 축제 마슬레니차, 성 바실리성당
위대한 상트페테르부르크	포트르 대제, 상트페테르부르크 도시
나타샤의 첫 무도회/발레	발레, 무도회, <전쟁과 평화>
러시아 혁명 (볼셰비키 혁명)	새로운 러시아 예술 문화 발달 산업화
모스크바/꿈	우주과학 기술(비행기, 로켓 등), 개성넘치는 도시의 젊은이들, 결혼과 육아/어린이

‘러시아 오디세이’는 거친 바다의 항해를 통해 러시아 대륙에 도착한 러시아인들이 광활한 영토에서 러시아인의 삶의 터전 형성 과정을 서사적으로 재현되었다. 핵심 단면들은 항해, 자작나무 숲에 농경지와 주거지 만들기,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건설 및 각종 발달 산업, 예술과 문학의 향연 안에서의 행복한 삶, 그리고 현재 우주 과학 산업의 발달국으로서의 러시아 위상이었다.

‘봄의 의례’에서는 세 마리의 쌍두마차인 트로이카가 등장하여 해를 이끌고 얼음으로 이루어진 동토를 지나 바다 위를 지난다. 얼음

바다가 붕괴되면서 고래가 등장하고 고래는 바실리 성당 모형으로 가득찬다. 이는 ‘봄’이라는 새로운 1년의 시작, 러시아의 문화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성 바실리 성당을 통해 당시 러시아의 새로운 변화를 의미한다.⁶⁾

‘표트르 대제’ 공연에서는 17세기 후반 러시아 서구화를 이끈 위대한 황제 표트르 대제가 피시트 스타디움에 등장했다. 표트르 대제와 일군의 병사들이 함선을 이용하여 바다 위를 항해하는 것으로 형상화했는데 이는 표트르 대제의 해군 창설, 함선 제작, 러시아 제국 영토 확장 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모스크바/꿈’ 공연에서는 러시아의 재건과 본격적인 발전상을 보여준다. 1917년 소비에트 혁명 이후 발전하는 러시아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소비에트 혁명 이후 현재 그리고 미래 러시아인들이 추구하는 꿈과 희망을 담고 있다. 먼저, 도시 재건 현장의 모습이다. 자유로운 분위기, 삶의 편의를 제공하는 도시, 그리고 규칙과 규범이 준수되는 질서있는 도시 이미지를 표현한다. 이어서 비행기와 로켓을 등장시켜 우주과학 기술의 강국 이미지를 다시 한번 부각시킨다. 이어서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 개성넘치는 도시의 젊은이들, 운동 선수들을 특별히 등장시키면서 러시아 미래의 꿈을 표현한다. 이어서 결혼과 육아, 그리고 어린이들을 등장시키면서 러시아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하나씩 표현한다.

6) 성바실리 성당이 건축된 것은 16세기이다. 13세기 몽골의 침입으로 러시아는 약 240여 년 간 몽골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15세기 말 이반 4세에 의한 대차르시대를 통해 러시아의 새로운 번영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였다. 당시 몽골의 지배로 인해 타타르인들이 현재까지도 전체 인구의 약 4%정도 차지한다(정두용 외, 2008, 157).

문화 공연으로 재현된 러시아의 역사와 문화의 특징은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러시아 역사의 흐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역사적 단면들과 발달 문화들을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러시아 내륙 개척기, 몽골의 지배와 독립시기, 표트르 대제 이후 러시아 제국의 영토 확장기, 볼셰비키 혁명기, 현재와 미래의 러시아 장면들로 구성하였다. 특히, 바다와 함선, 해군을 통해 바다로의 영토 확장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으며, 성 바실리 성당 건축물을 통해 ‘독립’, ‘자유’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현재 및 미래 러시아인들의 삶과 행복을 재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소치동계올림픽 개막식 영상 및 문화공연에 재현된 러시아 문화 유형

영상과 문화공연으로 재현된 러시아 문화는 러시아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생활무대로서의 자연환경, 러시아에서 발달하여 러시아인 뿐 아니라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문화, 그리고 지역별 위치적 특수성을 반영한 전통 문화와 생활 모습, 그리고 러시아의 우주과학기술 등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러시아의 역사적 발전 과정이다. 러시아의 태동기, 16세기 타타르인의 지배로 부터의 독립과 자유, 그리고 러시아 문화의 형성기, 표트르대제와 예카테리나 2세 여제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러시아 제국의 동서남으로의 영토 확장과 산업의 발달, 볼셰비키 혁명 후 근대산업의 발달기, 그리고 러시아의 현재와 미래상을 담은 러시아의 역사적 발전 과정이다. 러시아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는 표트르 대제와 예카테리나 2세 여제, 러시아 제국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러시아 알파벳, 키릴 문자를 통한 러시아 문화 재현 H(이)에서 러시아 제국이 소개되었고 E(예)에서는 러시아 제국의 여황제 예카테리나 2세가 등장했다. 러시아 제국은 1721년 표트르 대제에 의해 성립된 군주제 국가이다. 러시아 제국은 표트르 대제부터 알렉산드르 2세까지 꾸준히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서구화를 시도하였다. 러시아 역사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때이기도 한다. 예카테리나 2세는 표트르 대제와 함께 러시아의 대표적인 계몽군주였으며, 러시아 제국의 영토 확장과 교육과 문화 등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화공연에서는 ‘표트르 대제’를 주제로 하여 17세기 후반 러시아 서구화를 이끈 위대한 황제 표트르 대제가 피시트 스타디움에 등장한다. 표트르 대제와 일군의 병사들이 함선을 이용하여 바다 위를 항해하는 것으로 형상화했는데 이는 표트르 대제의 해군 창설, 함선 제작, 러시아 제국 영토 확장 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러시아 제국, 표트르 대제, 예카테리나 여제를 통해서 서유럽화 정책의 추진과 러시아 제국의 영토 확대, 러시아 문화의 정체성 형성 등과 같은 업적을 남긴 표트르 대제를 통해 러시아 역사에서 러시아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상트페테르부르크’ 도시를 통해 과거 러시아의 비약적 발전상과 러시아의 국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후 볼셰비키 혁명 후 새로운 러시아의 발전 모습, 그리고 현재와 미래 러시아의 발전상과 미래상을 재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러시아에서 뿐 아니라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세계적인 러시아 문학과 예술을 재현하고 있다. 톨스토이를 비롯하여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던 훌륭한 작가, 예술가 그리고 과학자들로 구성된

인물들을 소개함과 동시에 그들의 업적과 작품을 보여주면서 인문 예술의 보편적 가치를 세계에 확산시키는 러시아 인물들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특히 문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깊다. 러시아인들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다양한 세계문학 작품을 읽고 있는 모습은 깊숙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문학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박종소, 2014, 172). 33개의 러시아 알파벳을 중심으로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영상물에서 5명의 작가들(도스토예프스키, 나보코프, 톨스토이, 체호프, 푸슈킨)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문화공연에서는 <전쟁과 평화>작품을 활용하여 러시아의 역사를 재현하였다. 러시아인들의 자국의 작가들과 문학에 대한 긍지와 사랑을 전 세계인에게 보여주었다.

셋째, 거대한 영토만큼이나 지역적 자연환경의 특수성을 지닌 러시아의 7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거주민의 생활 모습과 지역의 자연환경이다. 이를 통해 러시아의 거대한 영토와 다양한 자연환경, 그리고 다양한 자연환경을 무대로 삼아 살아가는 다양한 소수민족과 그들의 문화를 소개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소수민족과 그들의 문화를 조화롭게 발전시켜가는 러시아의 강력한 내적 힘을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개막식 영상과 문화공연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루면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우주과학기술 분야이다. 이고르 시코르스키, 유리 가가린, 주콥스키, 치올코프스키, 알렉세이 시추세프와 같은 과학자들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이들에 의해 발달한 과학 문명을 집중적으로 선보였다.

IV. 결 론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식 문화영상 및 문화공연은 러시아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신들의 문화를 세계인들에게 보여준 행사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면에서 개막식 영상과 문화공연에 등장한 러시아 문화 분석은 러시아인들의 시각에서 러시아 문화의 정체성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소치동계올림픽 개막식 행사는 영상, 조형물, 배경, 그리고 문화 공연으로 이루어졌다. 그 중 영상을 통해 러시아 문화 콘텐츠들이 재현되었고, 조형물, 배경, 문화 공연 등을 통해서는 서사적으로 러시아 문화가 재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막식 영상과 문화 공연, 배경에 등장한 문화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개막식 프로그램 중 ‘러시아 알파벳’ 영상, ‘러시아의 목소리’ 영상, 그리고 러시아 문화 공연인 ‘러시아 오딧세이’, ‘봄의 의례/축제’, ‘나타샤 로스토바의 첫 무도회’, ‘포트르대제/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꿈’을 대상으로 하였다.

‘러시아 알파벳’영상에 재현된 문화콘텐츠는 러시아의 우수한 우주과학 기술문화, 오랜 역사에 걸쳐 러시아인들의 삶 뿐 아니라 세계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문학, 예술 분야의 인물과 그들의 작품, 러시아 사회를 획기적으로 발전 전환시켰던 계몽군주, 그리고 러시아인들의 삶에 보편적으로 녹아들어서 있는 전통적인 삶의 문화, 그리고 바이칼 호수로 대표되는 자연환경으로 유형화될 수 있었다. 이러한 재현 문화 콘텐츠들에서는 러시아 뿐 아니라 세계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과 인류 삶의 편의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들이라는 점과 러시아의 특별

한 자연환경으로 만들어진 전통성 짙은 문화적 특성을 지닌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러시아의 목소리’ 영상에서는 광대한 러시아 영토의 아름다운 그리고 독특한 자연환경 지역 7곳을 대상으로 그 곳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삶의 환경을 보여주었다. 그 곳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들의 독특한 생활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채로운 자연환경을 공동의 생활무대로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그들만의 독특한 생활 문화를 유지하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이다.

러시아 문화 공연인 ‘러시아 오딧세이’, ‘봄의 의례/축제’, ‘나타샤 로스토바의 첫 무도회’, ‘표트르대제/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꿈’에서는 전체적으로 러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단면들로 구성하여 표현하였다. 러시아의 태동기, 16세기 타타르인의 지배로 부터의 독립과 자유, 그리고 러시아 문화의 형성기, 표트르대제와 예카테리나 2세 여제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러시아 제국의 동서남으로의 영토 확장과 산업의 발달, 볼셰비키 혁명 후 근대산업의 발달기, 그리고 러시아의 현재와 미래상을 담은 러시아의 역사적 발전 과정이다.

개막식 영상과 문화공연을 통해 재현한 러시아 문화 유형의 특징을 종합해 보면, 러시아인들이 내세우고 싶은 러시아 문화는 지역마다 독특한 자연환경을 토대로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러시아 전통 문화, 러시아의 정신을 담은 문학과 예술, 우주 과학기술, 그리고 다양한 소수민족들과의 화합과 자유, 학생, 결혼, 어린이 등의 키워드로 이루어진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내적 역량이었다. 춥고 척박한 지역으로서의 이미지보다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문화 국가로서의 이미지 구현과 동시에 다양한 민족이 만들어내는 문화국가로

서의 이미지를 드러냈다. 이는 제임스 빌링턴이 언급한 ‘러시아의 정체성을 찾고 있는 러시아’를 내포한다(Billington, 2004). 포스트르대제 이후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 1917년 소비에트 사회주의 혁명, 1990년대 소비에트사회주의 연맹공화국의 붕괴를 통해 큰 변화를 겪었던 러시아는 장구한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는 러시아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러시아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세계에 대한 무지는 글로벌 사회에서 세계인과의 소통과 공감을 저해한다. 경쟁력 또한 갖기 어렵다. 세계지리나 국제이해교육에서 타국과 타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는 이유이다. 그래서 이정환(2015, 327)은 글로벌 사회에서 기본적인 지리적 식견을 갖추지 못하는 것은 지리적 문맹이며 이는 글로벌 시민으로서 세계에 관한 기본적 지식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특히, 러시아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인 모든 면에서 미국, 중국, 일본과 더불어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웃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인식하고 있는 러시아는 외부자의 시선에 한정되어 있는 지극히 한정적이고 협소하고 편협하기까지 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수행한 러시아 인의 시각에서 바라 본 러시아의 문화 인식은 다양한 관점에서 러시아 문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지리적 환경과 정치·경제적 측면 중심의 학교 교육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러시아 문화 이해 및 러시아 인 이해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소치동계올림픽의 개막식 영상이라는 지극히 일부분에 한정된 러시아 문화 분석이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의 러시아 문화 이해 접근을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러시아 문화 분석 사례 연

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공영호(2002). 러시아문화 연구 방법론에 대한 고찰, **비교문화연구**, 제5권, 한국비교교육학회, 1-15.
- 강익모(2008).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나타난 도시성격의 구축 연구 -장이모 감독의 개막식 연출 분석을 중심으로-. **2008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97-115.
- 권정임(2005). 러시아 유라시아주의-상상의 지리에서 현실의 지리로-. **노어노문학**, 17(1), 한국노어노문학회, 165-193.
- 김다원, 한건수(2012). 사실과 재현의 관점에서 아프리카 다시 보기. **대한지리학회지**, 47(3), 대한지리학회, 440-458.
- 김수환(2006). 러시아 ‘상상하기’: 러시아 문화 정체성에 있어서 ‘타자’ 구성의 문제. **러시아학**, 제2권, 충북대학교 러시아연구소, 73-89.
- 박종소(2014). 러시아 속의 세계 문학: 러시아어의 세계문학 수용과 경험을 중심으로(1917-2013), **러시아연구**, 24(2), 171-192.
- 방교영(2011). 러시아 국가 이미지에 관한 연구. **슬라브 연구**, 27(4), 97-123.
- 백승국, 권지혁, 한창호(2012). 문화코드의 문화기호학적 고찰. **인문콘텐츠**, 제24권, 인문콘텐츠학회, 149-176.
- 송성수(2008). 어머니에게 바친 주기율표, 드미트리멘델레예프. **기계저널**, 48(5), 대한기계학회, 29-32.
- 안영은(2013). 베이징 올림픽과 중국 문화코드. **글로벌 문화 콘텐츠**, 제11권,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학회, 31-52.
- 유경숙(2014).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의 문화프로그램 분석 및 특징. **인문콘텐츠**, 제33권, 인문콘텐츠학회, 187-211.
- 윤남희(2008). 한국 초등교과서에 나타난 러시아 국가 이미지 분석 -제 7차 교육과정의 기호학적 접근-, 서울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희경(2010). 본원적 실재에 관한 인식화(認識書)로서의 말레비치의 추상화. **美術史學報. 제34권**. 미술사학연구회. 331-355.
- 이경한(2015). 지리문해력을 통한 국제이해교육 실천하기, **모두를 위한 국제 이해교육**(강순원 외), 살림터.
- 이경한(2010). 국제이해교육의 매개체로서 지리교과서의 서술구조 및 내용 분석 -중학교 1학년 사회 교과서의 『지역마다 다른 문화』 단원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8(3)**.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297-307.
- 이미정(2004). 러시아 소수 민족 타타르의 문학연구: 투카이를 중심으로. 성 공회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수(2011). 올림픽 개막식과 국가 정체성의 구성: 나가노, 시드니, 베이징, 벤쿠버 올림픽 문화공연‘중계’ 비교분석. **한국방송학보. 25(6)**. 한국방송학회. 375-420.
- 이진숙(2007). **러시아 미술사**. 민음사.
- 정두용, 김다원, 김희경(2008). **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인가?**. 교육과학사.
- 정여울(2015). 헤세로 가는 길, arte.
- 황성우(2012). 지리적 상상력과 상상의 지리. **Russia and Russian Federation. 3(3)**.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52-55.
- Billington, J. H(2004). *Russia in search of itself*. The Jones Hopkins University Press.
- Boulding, K. E.(1956). *The Image Knowledge in Life and Society*, The University of Michigan.
- English, P. W.(1984). *World Regional Geography: A Question of Place*, John Wiley & Sons.
- Leibold, J.(2010). The Beijing Olympics and China’ Conflicted national form. *The China Journal. 63*. 1~25.
- Rouche, M.(2000). *Mega-Events and Modernity*. London: Routededge.
- Scott, W. A.(1966). *Psychological & Social Correlates of International Images*. Holt, Rinerhart & Winston.
- MBC 방송, 2014 소치 올림픽 개막식 영상 <http://vodmall.imbc.com/player/sochi/index.html>

Abstract

Rereading Russian Culture by Russian perspective - Centered on 2014 Sochi Winter Olympic Game's Culture Programs Analysis -

Da Won Kim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study analysed 2014 Sochi Winter Olympic Game's culture programmes. Host Countries have informed their home countries' cultures and history at the Olympic. This study especially analysed 'Russian Alphabet', 'Voices of Russia', and other cultural performances. In 'Russian Alphabet', Russia introduced Russian historical people contributed to the historical development, Russian great inventions, and Lake Baikal. In 'Voices of Russia', they targeted 7 unique and beautiful natural regions of Russia, showing their unique traditional cultures of ethnic minorities. In cultural performances, they expressed the freedom and independence of Russians and highlighted the cultures that led to the formation of the Russian breakthrough by Peter the Great and Empress Catherine, the Russian architecture called by Vasily Cathedral, music, art, literature, Space Science and Technology.

Key words : Russian Culture, Olympic Opening Ceremony, Cultural Diversity, Geography Education,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투고신청일 : 2015. 04. 30

심사수정일 : 2015. 06. 17

게재확정일 : 2015. 06. 27